

“민담은 인간이 함께 꾸는 큰 꿈”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펴낸 이부영 교수



이부영 교수(64, 서울대 의대 신경정신과)는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기 짝이 없던 60년대 말 우리나라에 분석심리학회를 창립, 이 분야를 국내에 소개하고 연구를 발흥시킨 이른바 1세대 학자다. 그가 최근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집문당)을 펴냈다.

한국 민담을 분석심리학적 방법론으로 해석한 연구논문들을 수록한 이 책은 민담에

대한 정통적인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주목을 끈다.

분석심리학적 민담해석의 모범 제시

“세계각처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실로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도 언제나 되풀이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C. G. 융이 민담에서 인간무의식의 보편적, 원초적 조건이 발견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며 따라서 분석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심성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민담해석을 해야 합니다.”

인류공동의 선형적이고 원초적인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개인적인 무의식과 구별하고 있는 분석심리학에서 민담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이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꿈을 꾸다. 그 꿈속에서 때로는 선녀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기도 하고 괴력이 생겨 괴물을 퇴치하기도 하고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는 등 현실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겪은 충격적이며 뜻하지 않은 ‘큰 꿈’이 민담의 원천입니다. 한 개인의 꿈이 그의 무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듯 민담도 인간의 무의식의 아주 깊은 층의 여러 경향을 살펴보는 특수한 자료입니다.”

이부영 교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환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다. 정신의학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꿈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담의 해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민담은 인간 공동이 꾸는 집단적인 꿈이라는 해석이다.

이교수가 62년 스위스 융 연구소에서 분석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 책은 그의 오랜 기간에 걸친 민담분석 작업의 결과를 추스린 것이다.

이 책은 <내가 누구냐> <지네장터> <호랑이와 세 아이> <선녀와 나무꾼> 등 대표적인 한국민담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논문들과 ‘원령(怨靈)’ ‘악’ ‘여성상’ ‘질병과 치료’ 등 몇가지 문제를 놓고 한국의 민담들과 외국 민담 가운데 유화(類話)를 두루 살핀 주제별 논문으로 크게 대별된다.

<선녀와 나무꾼>은 그가 융연구소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분석한 것인데 자신을 포함한 한국사람의 집단무의식의 심층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경우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람의 경우 무의식에 대한 의존이 강하고 독립적인 힘이 약한 경향이 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이밖에도 70년대 정치적으로 실제 ‘악(惡)이 횡행하던 시절, 한국민담에 나타난 악의 상(象)과 대처양상을 분석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민담에서는 악을 물리

치는 수단으로 노래나 춤, 음악 등 자연스러운 표현과 태도를 강조하며 인공적인 것은 오히려 응징받는 특징을 지닌다.

인류 보편의 원초적 심성

이 책에서 그는 한국 민담을 통해 우리 민족이 가진 집단적 무의식의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민담을 어느 특정 민족이나 집단 심성과 성급하게 결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민담도 집단 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성이 부각될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류 보편의 원초적 심성의 원류가 흐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

“민담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양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갈등을 가진 환자를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지혜를 이끌어 내는 데 있습니다.”

정신병을 치유하는 힘은 치료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무의식의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정감의 표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는 이 교수는 요즘에도 일주일에 두 번 병원에 나가 환자를 만난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속설화인 <바리데기>를 통해 인간의 자기실현 과정과 성숙화 과정을 분석해볼 계획이다.

—박남정 기자

표지의 말

팔만대장경과 판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750여 년 전 조상들의 지극한 불심으로 이뤄진 팔만대장경은 나라를 지켜주는 상징이다. 화엄의 정신이 깃든 경남 합천군 가

야면 해인사에 그 상징이 고스란히 자리한다. 오로지 8만여판의 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판고의 모습은 간결하고, 흠바닥 위에는 판각들이 가지런히 줄었다. 벽면마다 위 아래 통풍을 위한 창이 달려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크기가 다르고 간단한 나무 창살만 드리워져 있다.

경판은 후박나무다. 짚물에 담가 기름을 뺀 뒤 결을 말린 다음 판각하고, 양끝에 다른 나무를 씌워 뒤틀림을 막았다. 네 모서리에는 구리판을 붙였고 글자를 새긴 뒤 열개 옷칠해 보호했다. 그렇게 새긴 몇천만개의 글자가 한결같이 고르고 정밀하다.

해인사를 감싸안듯 둘러쳐진 소나무 숲에서 숨기없는 솔바람이 불어와 몇백년의 세월을 지켜준다.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것’의 빛남을 되돌아보는 빈약한 마음들이 부끄럽다. —김지옥 기자